

2016학년도 수능대비

수능특강 A

문학

변형 문제



1994학년도 1차 수능 '산', 1996학년도 수능 '삼수갑산', 1999학년도 수능 '진달래꽃',
1998학년도 6모 '나의 집', 2011학년도 9모 '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시’는 이렇게! 분석한다.

화자

작품 내부/외부, 기타()

상황

현실

정서 태도

긍정/부정, 순응/저항, 비판/예찬, 자연친화

기타 :

주제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 회상, 시간의 역전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장면의 변화, 초점화

선경후정, 수미상관, 시상의 전환/집약

운율

반복

동일한/유사한, 음/시구/시행/통사구조

율격

음보율

음수율

이미지

감각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복합

상징적

상승↔하강, 생성↔소멸, 밝음↔어둠

수사법

은유 직유

의인

도치

대구

설의

역설

반어

상징

원형적

관습적 (제도적)

개인적 (창조적)

관념의 구체화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어조

대화체

경어체

영탄적

명령형

독백체

단정적

비판적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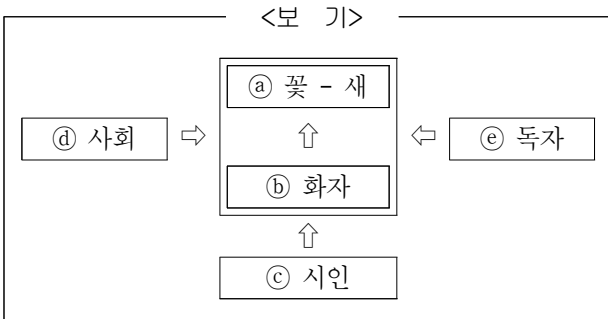
- ① 느린 호흡으로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어구의 반복적 사용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안정감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자연의 공간을 배경으로 자연물의 존재 양상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존재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2. 이 시의 1~2연이 <보기>를 바꿔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율격과 형태상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꽃이 피네.	
산에서 산에서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① 시어를 생략하여 3음보 율격을 강화했다.
- ②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각운을 형성했다.
- ③ 시어를 변형하여 말소리의 느낌과 리듬감을 살렸다.
- ④ 여러 행으로 나누고 글자 수를 줄여서 호흡을 조절했다.
- ⑤ 각 행의 음보 수를 변화시켜 형식의 고정성을 탈피했다.

3. <보기>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 이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새’는 ‘꽃’을 좋아하지만,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어서 울고 있는 것 같아.
- ② b : ‘새’가 화자의 분신이라면, 화자는 외로움을 수용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c : 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인간의 근원적 한계와 고독감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아.
- ④ d : 자연을 파괴해 ‘꽃’과 ‘새’의 삶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던 산업화 시기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야.
- ⑤ e :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 느꼈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꽃’과 ‘새’처럼 결국 누구나 고독한 존재인 거야.

4.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는 시작과 끝이 서로 대응되면서 꽃이 피고 지는 현상에 주목하게 해.
- ② ‘갈 봄 여름 없이’에서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③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을 통해 고독한 존재의 극한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려 한 것 같아.

- ④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에게 다가서려는 존재로 화자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 ⑤ 대체적으로 7·5조의 음수율을 이루어 음악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

5. 이 시의 화자(A)와 <보기>의 화자(B)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겨울 나무와 /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김남조, 설일

- ① A :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 ② B :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텐데요.
- ③ A : 함께 있을 땐 즐겁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 ④ B : 그럴 땐 고립되어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 ⑤ A : 아니에요. 그들이나 나나 운명적으로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같은 걸요.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북쪽에 가족을 두고 홀로 월남한 ‘나’의 아버지는 남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죽음을 맞는다. 평생 어머니에게 생계를 감당하게 했던 무능한 아버지는 죽는 순간 북쪽에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다. 그로부터 17년 뒤 남북이 통일된 직후인 2002년, 북쪽에 사는 이복형 태섭이 ‘나’를 방문한다. 아버지의 묘에 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가 생전 아버지의 것임을 눈치챈다. 그날 밤 술상을 앞에 두고 둘은 이야기를 나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형님께서 사실은 여기가 초행이 아니시죠?”

“메, 메라고 하는 말임둥? 그거이 난데없이 무슨 말이요? 처음이 아니라니?”

나는 대답 대신 그윽한 눈길로 태섭 형님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가 보일락 말락 흔들렸다.

“기거이…….”

“형님……! 제가 이미 시계 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만하면 족히 아실 텐데요?”

“……!” / 그가 고개를 비스듬히 꺾었다.

“㉠형님입……!” / “나를 알아보았었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쥐색 양복에 맥고모자…….”

“그 맥고모자 쓴 분은 내가 아니다…….” / “그럼?”

“그 옆에 까만 비닐 가방을 들고 야자수 이파리 그려진 혈령한 남방셔츠 입은 젊은이가 안 떠오름둥?”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었죠? 그럼……?” / “그 젊은이었지, 내레.”

“그럼 맥고모자는……?” / “응…… 호…… 어른.”

나는 술잔을 들어 목마른 사람처럼 단번에 들이켰다. 목젖을 스쳐 기도를 타고 흘러내리는 액체가 살갗을 태울 듯 찌릿했다.

<중략>

남방을 입은 청년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맥고모자는 땀범벅이 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맥고모자를 뺀히 올려다보았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특히 남방을 입은 청년에게 더 강렬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무심증이 와락 달라붙었다.

— 아찌 누구세요? 애들 잡아가는 사람이예요? 전 보기보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리 아세요!

— 염려 놓으라니깐. 우린 네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잘 안다는 말에 내 귀는 솔깃해졌고 눈길은 자연스레 남방 청년이 쥐고 있는 뚱뚱한 비닐 가방에 가 닿았다. 혹시 올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왔나!

—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맥고모자는 청년을 시켜 가방에서 캐러멜하고 일제 과자가 든 봉지를 내밀었다. 나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덥석 받진 않았다. 오른발 검정 고무신 끝으로 내 주위의 땅을 파고 둥그런 원을 되풀이해서 그렸다.

— 이거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렴.

나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러기에는 어린 나의 인내력은 너무도 취약했던 것이다. 맥고모자가 봉지에서 캐러멜을 하나 꺼내 억지로 내 입에 넣어 주었다. 생전 처음 보는 맛이였다. 입안에선 금세 침이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혀바닥도 격하게 꿈틀댔다. 불가항력이였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 손은 그에 과자 봉지 쪽으로 스물스물 뻗어 갔고 앞장을 서서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아버지가 현기증이 나는지 문설주를 붙잡을 만큼 몹시 놀라는 표정으로 짐작컨대 그들이 아버지와 오랜만에 만나는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호영아, 어서 나가 놀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나는 그 일제 과자와 캐러멜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다.

“기래, 맞아.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내레 작은 아바이와 함께 공작원으로 뽑혔었어. 이런저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남은 공작이 바로…….”

“아버지를…….” / 태섭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북으로 돌아가는 거였다. 첫 대면이었지만 아바이래 한눈에 날 알아보시드만. 그거이…… 기래 바로 혈육의 끌어당김이라는 거 아님둥? 기때 처음으로 아바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레 소리 죽여 실컷 울었다. 아암 원 없이. 여기서 병든 몸으로 생고생하지 말고 같이 가서 오마니랑 잘 살자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A] 내 목소리는 떨려서 나왔다. 그 대목에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북쪽에 잔뼈가 굵은 고향에다 부모 처자식을 모두 두고 남쪽으로 흘러나온 당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끌어안고 사시던 아버지가 아니던가! 게다가 남쪽에서는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 공작원으로 파견된 아우와 이름도 지어 주지 못했던 핏덩이 아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어쩔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끼인 나란 존재는 무엇이였을까? 그들이 내민 달디단 캐러멜을 애들 앞에서 자랑스레 씹으며 혜정이네 골목을 신바람 나서 누비던 어린 나의 존재란 무엇이던가!

“……!” / “아버지가요……?”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 그는 왼손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기때 아바이래 야속하게두 이렇게 말씀허셨지. 붓도랑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이래 북쪽을 발써 잊었다구 말이다. 저 어린것과 고생만 하는 에미를 보라면서 말이야. 그러니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시며 가슴을 쥐어뜯으셨드랬다. 태섭아 부르시며, 옆드린 내 등을 쓰다듬으시면서리 이 아바이를 부디 용서하라고…… 기러시면서 차고 계시던 시계를 풀어 주셨다. 혹, 아바이가 생각나면 시계라도 보라고…….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바이래 얼마나 섭했던지……. 허지만서두 나중에 지켜보니 그거이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철조망 이쪽저쪽을 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고 텅일에 일조를 하는 일도 아니겠고……. 내레도 만약 그런 처지라든 기러케 했을 거이야, 아마도.”

나는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코가 땡땡해져 왔다. 눈이 여린 아내가 고개를 돌려 어깨로 눈시울을 훔쳤다.

시점	1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제한 / 무한)	전기성	유 / 무
서술 특징	① 직접 or 간접 ② 대화, 행동 중심 or 설명, 요약 or 의식의 흐름 ③ 심리 표현 : 유 or 무		우연성	유 / 무
			운문체 / 판소리체	유 / 무
시간 / 구성	순행 / 역행 / 병행		서술자 개입	유 / 무
배경 소재				

6.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상징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이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7. 이 글의 '손목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상징한다.
 ㄴ. '나'가 태섭의 과거를 의심하는 기능을 한다.
 ㄷ. 태섭이 공작원의 신분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ㄹ.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 주는 역할을 한다.
 ㅁ.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한 징표를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8. 윗글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의 어느 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표
현하고 있다.
 ② 방언을 사용하여 글에 생동감을 주며 현실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③ 간결한 문장과 대화를 통해 인물간의 갈등을 긴
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작품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효
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현재와 과거의 교차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9. 이 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의 대사를 하는
배우에게 감독이 요구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태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불쌍한 표정을
지어 주세요.
 ②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대
사를 해 주세요.
 ③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하겠다는 듯이 은근한
태도로 연기해 주세요.
 ④ 사실을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압력을
가하듯이 대사를 해 주세요.
 ⑤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 마지막 소원을 들어 달라
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대사를 해 주세요.

1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아버지 ⇔ ㉢ '나' ⇔ ㉣ 태섭 ⇔ ㉤ 아버지

- ① ㉡가 ㉣를 따라나서지 않은 것은 ㉢ 때문이다.
 ② ㉢와 ㉣의 관계는 ㉡의 의지에 의해 개선되었다.
 ③ ㉡는 ㉢와 ㉣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매개가 된다.
 ④ ㉡는 ㉣의 이름도 지어 주지 못한 채 고향을 떠
났다.
 ⑤ ㉢는 ㉣의 이야기를 통해 ㉡에 대해 가졌던 오해
를 풀 수 있었다.

1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아버지의 '서자'라는 의식에 괴로워하고 있
다.
 ② '나'가 자신의 내면적 고뇌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③ '나'는 평생 가난했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괴
로워했다.
 ④ '나'는 아버지가 '나'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의 속마음을 몹시 궁금해 했다.
 ⑤ '나'는 아버지의 처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에게 '나'의
존재란 무엇일까에 대해 불안해 했다.

CONTENTS

e+PLUS 수능특강 A

문학 변형 문제

현대시 A-1. <김소월, '산유화'>	6
현대소설 A-1. <김소진, '목마른 뿌리'>	8
고전운문 A-1. <정구 '강호에~', 이현보 '귀거래~', 성혼 '말 없는~'>	11
고전소설 A-1. <김시습, '이생규장전'>	13
현대시 A-2 <서정주, '국화 옆에서'>	20
현대소설 A-2. <이호철, '큰 산'>	22
고전운문 A-2. <작자미상, '청산별곡'>	26
극문학 A-2. <황순원 원작, 신봉승·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28
현대시 A-3. <조병화, '의자'>	30
현대소설 A-3. <오상원, '유예'>	32
고전운문 A-3.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36
고전산문 A-3. <작자미상, '홍계월전'>	40
현대시 AB-4. <문정희, '겨울 일기'>	46
현대소설 AB-4. <현진건, '고향'>	50
극문학 AB-4. <이강백, '결혼'>	54
고전소설 AB-4. <작자 미상, '수궁가'>	60

실전 모의고사 문학 변형 문제

현대시 A-1. <이가림, '석류'>	66
현대소설 A-1. <채만식, '태평천하'>	68
고전운문 A-1. <황희 '대추 불~', 남구만 '동창이~', 작자 미상 '논밭 갈아~'>	73
고전산문 A-1. <작자 미상, '운영전'>	75
현대수필 A-1.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80
현대시 A-2. <김영랑, '독(毒)을 차고'>	84
현대소설 A-2. <박완서, '나무(裸木)'>	88
고전운문 A-2. <작자 미상, '덴둥어미 화전가'>	93
고전산문 AB-2. <작자 미상, '적벽가'>	97

정답 및 해설	102
---------------	-----